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7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예산)

【1부】 예산군의 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 동향

| 1-② 주제발표 |

예산군 귀농귀촌과 마을만들기

- 이태백 귀농귀촌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귀농 · 귀촌과 마을만들기

이 태 백
(예산군 귀농귀촌 네트워크 회장)

CONTENTS

1. 귀농귀촌의 현황

2. 활동 보고

3.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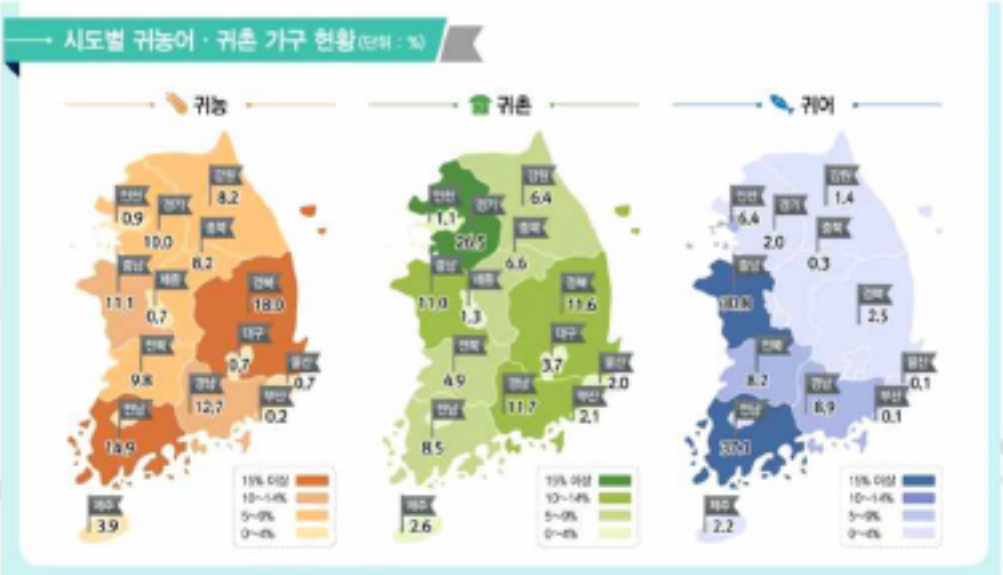
Ⅰ.귀농귀촌의 현황

1. 전국적 현황
2. 예산군의 현황
3. 국내 사례
4. 해외 사례

1. 전국적 현황

❖ 경북이 2,323가구(18.0%)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고, 전남(1,923가구), 경남(1,631가구),

❖ 충남(1,423가구), 경기(1,283가구), 전북(1,263가구), 강원 (1,058가구)이 1,000가구를 상회



1. 전국적 현황

❖ 시도별 귀농가구 현황

구분	전국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12,873	27	92	122	87	84	1,283	1,058	1,052	1,423	1,263	1,923	2,323	1,631	507
	(100.0)	(0.2)	(0.7)	(0.9)	(0.7)	(0.7)	(10.0)	(8.2)	(8.2)	(11.1)	(9.8)	(14.9)	(18.0)	(12.7)	(3.9)
2015	11,939	31	72	103	94	64	1,061	930	928	1,374	1,164	1,869	2,221	1,612	390
	(100.0)	(0.3)	(0.6)	(0.9)	(0.7)	(0.5)	(8.9)	(8.2)	(7.8)	(11.5)	(9.7)	(15.6)	(18.6)	(13.5)	(3.3)
증감	916	-4	20	19	-7	20	222	72	124	49	99	54	102	19	117
	(0.0)	(0.0)	(0.1)	(0.1)	(0.0)	(0.1)	(1.1)	(0.0)	(0.4)	(-0.4)	(0.1)	(-0.7)	(-0.5)	(-0.8)	(0.7)
증감률	7.7	-12.9	27.8	18.4	-8.6	31.3	20.9	7.3	13.4	3.6	8.5	2.9	4.6	1.2	30.0

2. 예산군의 현황

❖ 충청지방통계청이 11월 말 내놓은 2015년 충남도내 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개 시군은 순이동률(총전입률-총전출률)이 증가하고, 5개 시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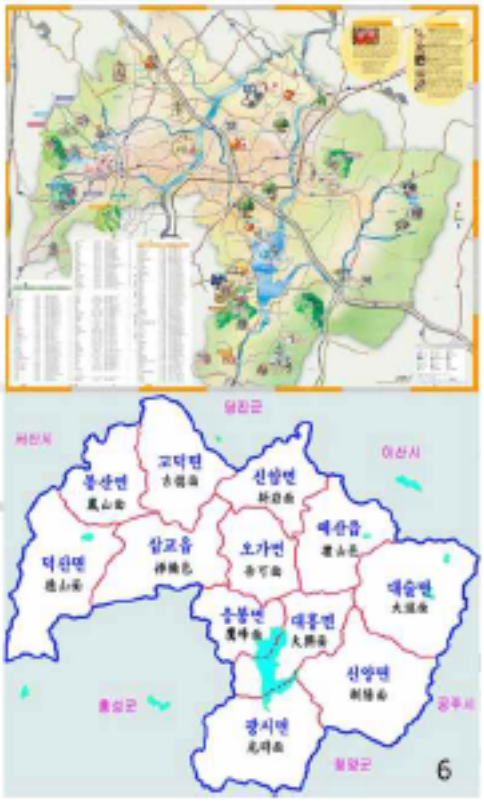
❖ 충격적인 사실은 공주시에 이어 예산군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크다

❖ 두 지역은 각각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로의 빨대효과가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예산군과 같이 도청이전으로 내포신도시에 일부 편입된 홍성군은 순이동률 3.2%로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내포본군형 개발의 결과가 인구이동 통계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군의 경우 2014년 딱 한차례 순이동이 100명(0.1%) 증가해 희망이 보이는가 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 1100명(-1.3%)으로 10년이내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희망의 싹이 짓밟혔다.

예산군 인구 9만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2007년, 본과 10년만에 1만명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
홍성군도 같은 해 나란히 9만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201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9만선을 회복한 뒤 꾸준히 늘고 있다



2. 예산군의 현황

'제5회 (사)한국젊은농업인 전국회원대회' 가 열리는 충남 예산군은 전체인구 약 8만 5000명 중 농업인구가 2만 5000명으로 예산군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에 걸맞게 민선 6기 농업정책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 로 정하고 그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군정을 펼치고 있다.

- 한국농업신문 (등록 2016.08.23 19:12:19)-

2. 예산군의 현황

1)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기초지자체 228개 가운데 77개가 30년이내에 소멸 예정이며, 거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이며 전남은 22개 중 17개, 전북은 14개 중 10개이며, 예산군의 인구는 2007년 9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군도 소멸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2) 현재 8만 명의 군민들 중 65세 이상이 약 25% 이며 이들이 30년 후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예산군의 인구는 6만 명 이하로 줄어듬

3) 현재 2만 5천명의 농민들 중 65세 이상은 약 40%에 이르며 30년 후에는 농민의 수는 1만 명 정도로 예측

4) 지자체의 붕괴를 막고,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

5)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자체의 붕괴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을 방해

6) 인구 유입의 방법은 신도시 건설, 대학 유치, 삼성, LG 등의 대기업 유치, 평택의 고덕 단지와 같은 대규모 복합 단지 유치, 대형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유치, 크고 작은 일반 산업단지 유치 ,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유입

예산군 귀농 귀촌 현황 (2013년~2015)

년도	귀농	귀촌	합계	비고
2013	89가구 132명	1572가구 2000명	1661가구 2132명	
2014	81가구 131명	1559가구 2025명	1640가구 2156명	
2015	90가구 141명	1642가구 2095명	1732가구 2236명	

자료제공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대화 마당 in 서천 2016년 10월 28일, 금.)

3. 국내 사례

[전북 고창군] 귀농귀촌 전담팀 신설해 전폭 지원, 선배귀농인들 헌신적 노력도 큰 힘
3년 연속 귀농실적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의 귀농귀촌인구는 2014년 12월 말 현재 3792가구, 7368명이다. 고창군 전체 인구가 6만여명 정도이니 전체 인구의 12%가 귀농귀촌인 인 셈이다. 2007년 10월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고창군과 귀농귀촌 선배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일궈낸 성과다. 고창은 이장님들 중 10% 이상이 귀농인 출신이다.

현재 월곡에 있는 뉴타운 커뮤니티센터에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5명)과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3명)가 함께 입주, 총 8명이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고창군은 우선 5~10가구 정도의 소규모 귀농귀촌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이나 상하수도·가로등 설치 등 기반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협의회와 협력해 선배 귀농인의 집 30여가구를 확보, 예비 귀농인들이 편안하게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선배들로부터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3년간(2013~15) 10억4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패밀리 5563 정착 프로그램'도 차별화된 정책 중 하나다. 2012년 공음면의 한 폐교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이론과 실습을 겸한 전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 간의 상호 정보 교환은 물론 친구를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제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돼 2016년까지 80억원(국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귀농 희망자들이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업 창업에 대한 실습·교육·체험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10

3. 사례종합

[경북 상주시] 입주자 주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성과, 귀농 롤모델사업으로 안정 정착 도모

상주시는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통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04가구, 2334명을 불러들였다. 이는 수도권에서 3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여건과 천혜의 자연조건, 상주시의 맞춤형 귀농·귀촌 장려정책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우선, 영농정착금(가구당 400만원)과 농가주택수리비(가구당 400만원) 지원과 함께 토목·건축 설계비 50% 감면, 집들이 행사비(가구당 4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임시거처로 상주시 귀농인의 집도 운영 중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상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입주자 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상주의 외지인구 유입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상주시가 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가로등 설치, 전기통신시설 설치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영농정착금(가구당 400만원)과 농가주택수리비(가구당 400만원) 지원과 함께 토목·건축 설계비 50% 감면, 집들이 행사비(가구당 40만원)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주시는 공동체 귀농학교, 도시민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집고치기 학교 등 다양한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해 예비 귀농인의 성공적인 귀농을 유도하고 있다.

상주시 귀농귀촌도우미(gwinong. sangju. go.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청 내 귀농귀촌특별지원팀을 구성해 보다 많은 귀농인을 상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귀농관련 정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11

1. 귀농귀촌의 현황
귀농귀촌 활력회복 마을 만들기

3. 사례종합

[충남 청양군]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 감면, 젊은층 공략 장기임대주택 건립

2010년 32명, 2011년 59명에 불과했던 충남 청양군의 귀농귀촌인구는 2014년 385가구, 57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세부지원책을 보면 우선 귀농인 농지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다. 젊은 귀농인을 우선 지원하는데, 전입 후 5년 이내 5ha까지며 전답은 3만5000원(3.3㎡당), 과수는 4만원(3.3㎡당)으로 관행임차료의 50%를, 매입비의 10%를 최대 2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농어민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유치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2억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225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농어촌보육교사 80명에게 1억500만원을 지원하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10개 마을 1200만원)과 농가도우미(14명, 2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32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840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귀농인에게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토록 지원하고, 소형 농업기계를 우선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젊은 층의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장기(전세) 임대주택 건립해 공급하고, 산촌생태마을을 활용해 산촌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 청양읍과 인접한 곳에 94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59㎡ 이하 100세대 규모의 전원연립형태 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오는 6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 또 토착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재이농을 방지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통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올해 마을이장과의 1:1 멘토링제도를 도입한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임시 거처인 기숙원룸형 '귀농인의 집' 조성을 추진 중이며, 귀농귀촌인 에듀팜 농장 2개소를 조성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현장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와 다양한 생업 수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도시민 유치에서부터 정착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귀농귀촌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

3. 사례종합

고창, 상주, 청양을 통해서 본 귀농 귀촌인들을 유도하는 정책

1) 교통여건과 천혜의 자연조건, 상주시의 맞춤형 귀농 · 귀촌 정책정책
2) 많은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고창(8명)
3) 조례제정 등의 법률적 지원
4)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 (5~10가구) 조성 후 진출입로 ,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본시설 지원
5) 대규모 정부지원 사업 확보(10억 ~100억)
6) 대규모 장농지원센터 혹은 장농 교육센터 운영 (중앙정부의 지원 필수)
7) 귀농인의 집 운영
8) 각종 경제적 지원정책 영농정착금(가구당 400만원), 농가주택수리비(가구당 400만원) ,토목 · 건축 설계비 50% 감면, 집들이 행사비(가구당 40만원)
9) 공동체 귀농학교, 도시민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집고치기 학교 등의 체험교육 실시
10) 귀농귀촌 통합 아카데미 운영
11) 귀농귀촌 도우미 사이트 운영
12) 장학금,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가도우미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소형농기계 지원. 특히 귀농인에게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토록 지원.
13) 롤 모델 개발, 1:1 멘토 멘티 제도 운영
14) 청년층 유입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

4. 해외사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들 중 영국의 'Fresh Start Academy', 일본의 연착륙 정책,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EU의 농업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정책이나 젊은 농업인 양성 및 지원정책, 일반 귀농인 지원정책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될 숙제들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농부가 되려면 정식으로 **농업전문학교**를 입학해 졸업해야 한다. 그러고도 농업현장에서 수년간 실습을 마친 후 **농부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농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일본도 1년 이상의 취농 후에야 농업인의 자격을 인정받아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의 선진 농업국들과 일본의 경우처럼 강도 높은 교육과정과 훈련을 받은 농업인들은 교육 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

어쩌면 우리도 실력 있고 젊은 귀농인과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농업인자격증', 혹은 '농업인사관학교'라도 신설하여 과정을 통과한 귀농인이나 농업후계자들에게 현재보다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을 해야 될 지도 모른다.

전세계 어디를 봐도 농업 소득만으로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다. 농가소득이 100원 이라면 스위스는 54원, 미국은 30원이 농가에 직접 주어지는 보조금인데 우리나라는 쌀 직불금을 최대로 지급했을 때 14원에 불과하다. 우리의 직불금 제도는 3배 이상 올려도 되는 상황이며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3~5년 등) 일반 직불금 보다 상향된 비율의 직불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농업정책, 귀농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기를 바란다.

-물에 비친 공주-

15

Ⅱ .활동보고

1. 2016년 활동보고
2. 예비회의 결과정리
3. 활동 내용

16

1. 귀농귀촌팀 2016년 활동보고

- 귀농귀촌팀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제4기 마을대학을 통해 구성, 본격적인 협의회 활동을 계획
- 마을대학 수료 후 팀별지원사업을 통해 1회의 예비회의, 2회의 정규회의, 3회의 선진지 견학을 시행

1 마을대학
- ✓ 귀농귀촌팀 구성 및 예비회의 구성

3 정규회의
- ✓ 팀별 지원사업을 통한 귀농귀촌팀 회의

2 예비회의
- ✓ 마을만들기개념정의
- ✓ 귀농인의 날 제정
- ✓ 군 단위 인력pool구성
- ✓ 귀농인DB정리
- ✓ 작목별 단계개척
- ✓ 귀농인 현지화
- ✓ 성공한 귀농인의 정의

4 선진지 견학
- ✓ 임실치즈마을
- ✓ 진안로컬푸드센터
- ✓ 칠갑산 알프스마을

17

2. 예비회의 결과정리(마을대학)

01 '행복마을 만들기' 에 대한 개념정리

02 귀농인의 날 제정

03 군 단위 인력 pool 구성

04 예산군 귀농인의 DB자료정리

05 작목별 판로 개척 및 귀농인의 정의

06 성공한 귀농인의 정의

18

2. 예비회의 결과정리(마을대학)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 정리

1) "행복마을 만들기"는 농촌의 초고령화와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촌 마을들이 붕괴되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자구책이며,

2) "행복마을 만들기"는 새마을 운동과 상반되는 개념의 새로운 운동으로 지역주민이 마을의 주인공이 되어 추진하는 상향식 농촌 살리기 사업이며(내발적발전론 참고),

3) "행복마을 만들기"는 마을 이장이 이끌어가는 생활공동체의 복원과 수익을 전제로 마을사업위원장이 이끌어가는 경제공동체의 활성화이며,

4) "행복마을 만들기"는 복원된 생활공동체와 활성화된 경제공동체를 융복합시키는 과정이며,

5) "행복마을 만들기"는 지역마을이 행복마을로 바뀌는 과정에서 귀농귀촌인들의 동참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민과 귀농귄촌인들이 상생하기 위한 사업이며,

6) "행복마을 만들기"는 가시적인 생활환경 개선, 개인과 마을의 재정적인 수입 증대, 마을 공동재산의 확대와 공동운영, 마을 공동의 작업시설 개선, 문화시설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의 유치 등등의 물질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마을 전체의 일체감, 개인의 성취도와 만족감, 행복체감지수 등을 포함하는 창조적인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이며,

7) "행복마을 만들기"는 인간성이 점점 사라져 가는 농촌의 세태 속에서 인성이 살아있는 '생활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사업이며 '인간성 회복'이란 개념에 직결되는 한국의 농촌Renaissance 운동이다.

19

Ⅱ. 활동 보고 귀농귀촌 합격족의 마을 만들기

내발적 발전론

♣ 내발적 발전론 이란 용어는 1975년 UN으 "함마숄트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endogenous development"를 일본의 경제학자 츠루미 가츠코가 그렇게 번역하면거 일반화 되었다.

♣ 2차 대전후 선진국의 막대한 원조에 의해 저개발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했지만 선후진국간의 격차는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두두러짐에 따라 서구적 근대화, 공업화의 획일적 개발논리에 대항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의 활용을 축으로 토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복지 지향 발전의 사상을 담고 있는 상향식 발전 이론이다.

귀농인의 날 제정

-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를 피하고, 농민의 날 등과의 중복을 피한다.
- 4월 20일(곡우)와 3월 05일(경칩) 중 택일 하는 것으로 제안.
- ♣ 곡우 - 곡우 때면 봄비가 잘 내리고,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며,
- 백곡이 윤택해지고,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 된다. 예부터 곡우 때는 벼농사의 파종이 있는 날이므로 죄인도 잡아가지 않았다.
- ♣ 경칩 - 겨울잠 자는 벌레나 동물, 식물이 깨어나고, 만물이 움트는 시기.
- 이때 옛 부터 젊은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씨앗을 선물로 주고받고 날이 어두워지면 동구 밖에 있는 수나무 암나무를 도는 사랑놀이로 정을 다졌습니다.
- 경칩은 토종 '연인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귀농인의 날 제정은 표결결과 곡우와 경칩이 동수로 나와서 결정 없이 그대로 센터에 보고함.
- 귀농귀촌팀이 귀농인의 날을 제정 선포한다는 것은 대표성의 문제 등을 안고 있었으며 연구를 위한 일종의 practicum 으로 간주함.

예산군 단위의 인력 풀(pool)

- 귀농귀촌인(현재51명)의 인력POOL을 조성하여 권약별로 DB화 한 후 적극 활용하고
- 숙련된 인력들을 양성하여 권약별로 공류하는 방안을 활용

귀농귀촌인들의 DB화

- 최초 인원을 51명으로 귀농귀촌인 DB 자료를 작성함.
- 귀농연도별/지역별/규모별/작목별로 정리.
- 향후 자료는 지속적으로 보강 필요
- 귀농년도에 관계없이 DB 작성

21

Ⅱ. 활동 보고 귀농귀촌 협력혁약 매용 만들기

작목별 판로 개척

- 판로는 주변의 연고 판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 신뢰를 지키자
-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각 종교 단체, 기업체,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SNS 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를 강구한다.

성공한 귀농인의 정의

이미숙

- 귀농은 우리 부부에게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현재는, 내 일이 있어서 내일을 걱정 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선택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귀농인이 성공한 귀농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원

- 주말이면 벤츠 타고 골프 치러 가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는 귀농인을 성공한 귀농인 이라고 봅니다. 벤츠를 타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선결조건은 돈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는 간절함이며,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한 것이 행복이며, 행복한 귀농인이 성공한 귀농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화

- 세속에서 "부자"의 정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인데, 성경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 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것을 물질에 두면 안되고 "마음의 여유"로 두고 싶습니다. 물질만 추구하다 보면 도시의 삶이나 똑 같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식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농촌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귀농인은 성공한 귀농인이다"라고 정의 합니다.

22

3. 활동 내용(정기회의)

01 1차 회의 : 귀농귀촌팀 및 청년활동가 합동회의(16년 11월 09일)

- 귀농귀촌 & 청년활동가 두 팀의 연합회의를 통하여 공동안건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
- 예산군 마을만들기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
- 두 팀의 팀원 간 친교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며 협조와 공통작업
- 평소 교류가 없던 두 팀간의 교류 및 화합

23

3. 활동 내용(정기회의)

02 2차 회의 : 4개 안건 회의진행(16년 11월 18일)

타 팀과의 협력
- ✓ 청년활동가팀과의 합동회의 내용정리
- ✓ 마을위원장팀 협력 중요

농업기술센터 협력
- ✓ 법인설립 및 세무교육 과정 멤버요청예정

1안건 2안건 3안건 4안건

법인설립
- ✓ 2017년 2월달 완료예정
- ✓ 전문가 초빙 및 토론진행

선진지 견학 계획
- ✓ 임실치즈마을
- ✓ 진안군 로컬푸드센터
- ✓ 청양군 칠갑산 알프스마을
- ✓ 견학일정 및 계획 토의

24

3. 활동 내용 (선진지 견학)

① 임실치즈마을, 임실치즈테마파크 견학

❖ 사무장과 함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시행

❖ 테마파크 체험사업부 최경 부장 : 조직구성 및 사업진행과정 브리핑

3. 활동 내용 (선진지 견학)

② 진안군 로컬푸드센터 견학

❖ 로컬푸드센터의 조직구성, 운영, 성공요인 발표를 듣고 법인구성의 출자 및 구성요령 회의

❖ 귀농귀촌인들은 사업의 아이디어와 주진을 주도하였고 향후에 현지인들이 주주로 합류하여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조화를 완성하였음

3. 활동 내용 (선진지 견학)

③ 청양군 칠갑산 알프스마을

❖ 황준환 위원장을 통해 조직구성과 운영, 앞으로 비전 및 향후방안에 대한 발표 후 법인구성 회의진행

❖ 청양의 알프스마을은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로서 규정되어지는 이유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

3. 활동 내용(정기회의)

03 6차 회의 : 총 정리 회의진행(16년 12월 06일)

◤ 협의체 구성 : 법인체의 2017년 2월중 완료를 목표

◤ 총 정 리 : 귀농귀촌팀은 마을만들기라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실전적, 체험적 경험을 쌓았고 의기투합하는 좋은 계기였음

◤ 기대효과

1) 지속적인 모임의 유지

2) 팀의 결속력 강화

3) 귀농귀촌인의 모임체 결성의 발판 마련

4) 팀이 나아갈 방향과 활동의 비전 확립

5) 센터 내의 다른 팀들과의 상호이해와 유기적 협력 관계 상승

6) 센터에서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선제적 능력 함양

Ⅲ.향후 계획

1. 마을만들기를 위한
   16가지 제언
2. 향후 과제

29

1. 마을만들기를 위한 16가지 제언

01) 마을 사람들로부터 자발적 동기가 나와야 한다.

02) 토의로 합의를 끌어내고 협력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03) 뚜렷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04) 마을 만들기 운동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05) 마을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한다.

06) 권위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07) 조직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08) 마을 만들기의 중심 축으로 이장팀과 귀농귀촌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30

1. 마을만들기를 위한 16가지 제언

09) 마을 만들기의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10) 성과와 과정에 동시 집중해야 한다.

11) 마을 외부 조직과 연대해야 한다.

12)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영역을 상정하여 행정과 주민 사이의 co-governance를 통하여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13)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14) 1인 10보 전진 보다는 10인 1보 전진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15) 마을 만들기 리더를 꾸준히 길러 내야 한다.

16)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31

2. 향후 과제

01) 예산군 귀농귀촌협의체(협의체명 미정)의 법인화 추진 (8 월말 예정)

02) 귀농인들의 DB(데이터베이스) 지속적인 업데이트 (연도별/지역별/작목별)

03)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정책목표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적 능력 함양.

04) 행복마을지원센터 내의 다른 팀들과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관계 함양

05) 예산군의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위하여 예산군과 농기센터, 농업기술원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 연구

06) 예산군 마을만들기의 조언과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계획서 작성 (2차 팀별지원사업)

07) 행복마을지원센터 내에서 팀이 나아갈 방향과 활동의 비전 확립

08) 예산군 귀농귀촌 네트워크를 활용한 독자적인 사업 개발

32

앞으로 "귀농귀촌네트워크"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창구로서
내발적발전론의 장점을 확대하고,
1인 10보 전진보다는 10인 1보
전진의 방식으로 예산군의 마을만
들기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란 복원 된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융복합 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때

마을위원장 및 다른 협의회들과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귀농귀촌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